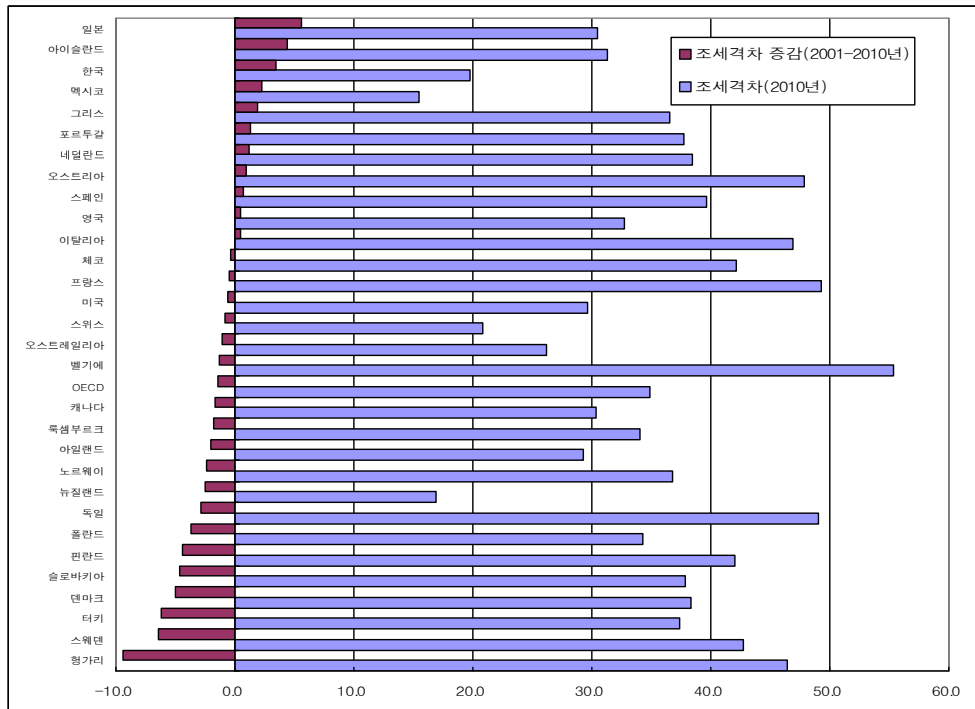


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(2001~2010) 비교

-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(독신무자녀 가구 기준)는 34.9%로 나타나 2001년 대비 1.4%p 감소하여 조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1)
- 2001년 대비 2010년 조세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는 헝가리(-9.4%p)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스웨덴(-6.4%p), 터키(-6.2%p), 덴마크(-5.0%p) 순으로 조세 부담이 줄어듦.

[그림 1] OECD 회원국의 2010년 조세격차 및 2001~2010년 조세격차 증감 비교

(단위 : %,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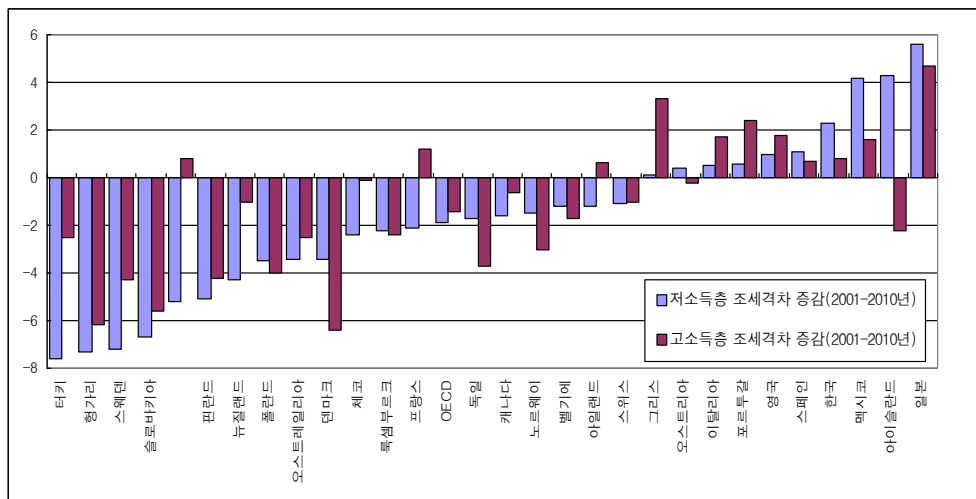
주 : 독신무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함.
 자료 : OECD, *Taxing Wages*(2009~2010).

1) 조세격차(Tax Wedge)는 노동비용에서 근로소득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, OECD에서는 전일제(full time)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.

- 반면 동 기간 우리나라(3.4%p)를 포함한 일본(5.6%), 아이슬란드(4.4%), 멕시코(2.3%p) 등의 나라는 오히려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 OECD 회원국의 저소득층(독신무자녀 가구 기준 평균소득의 67%)의 평균 조세 격차는 2001년 대비 1.9%p 줄어든 반면, 우리나라(2.3%p)를 포함한 일본(5.6%p), 아이슬란드(4.3%p), 멕시코(4.2%p) 등의 나라에서는 조세격차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 - 2010년 OECD 회원국의 고소득층(독신무자녀 가구 기준 평균소득의 167%)의 평균 조세격차는 39.4%를 기록하여 2001년 대비 1.4%p 감소하였으나, 일본(4.7%p), 그리스(3.3%p), 포르투갈(2.4%p), 영국(1.8%p), 한국(0.8%p) 등의 나라에서는 고소득층의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네덜란드, 프랑스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는 소득수준별 조세격차 증감이 상반된 양상이며, 특히 아이슬란드는 저소득층의 조세격차 증가폭이 큰 반면, 고소득층의 조세격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OECD 회원국의 저소득층·고소득층의 조세격차 증감 비교(2001~2010년)

(단위: %, %p)



주: 독신무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함.
 자료: OECD, *Taxing Wages*(2009~2010).

-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격차는 2010년 19.8%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 34.9%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, 선진국과 달리 조세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.
 - 또한 저소득층의 조세격차 증가폭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.

〈표 1〉 독신무자녀 가구 기준 소득수준별 조세격차 비교

(단위 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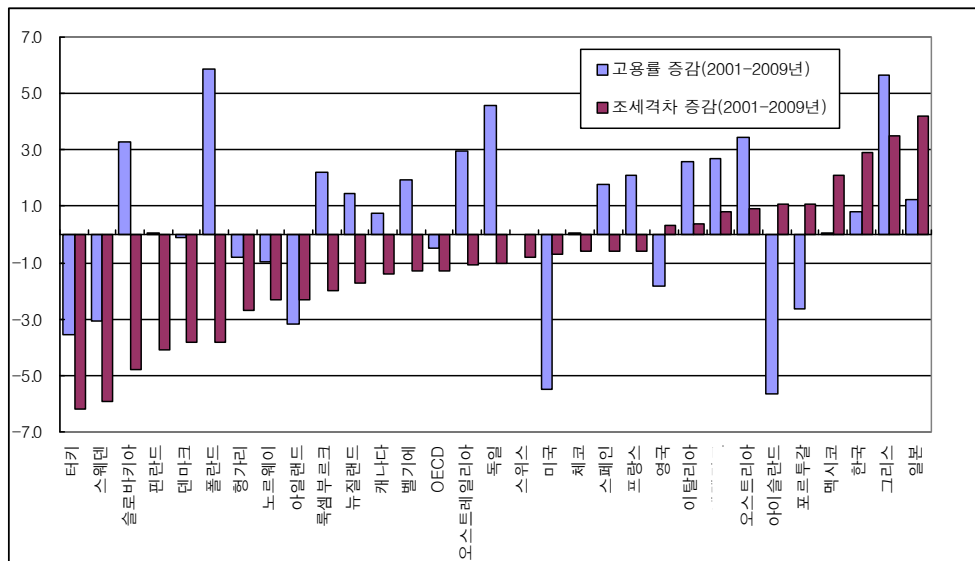
	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01~10
OECD	평균소득의 67%	33.2	33.3	33.0	32.8	32.5	32.3	32.2	31.7	31.2	31.3	-1.9
	평균소득의 100%	36.3	36.4	36.2	36.2	36.0	36.0	36.0	35.5	35.0	34.9	-1.4
	평균소득의 167%	40.8	41.0	41.0	41.0	40.6	40.5	40.4	40.0	39.6	39.4	-1.4
한국	평균소득의 67%	15.0	14.8	15.1	15.5	15.6	16.0	16.8	17.3	16.9	17.3	2.3
	평균소득의 100%	16.4	16.1	16.3	17.0	17.3	18.1	19.7	19.9	19.3	19.8	3.4
	평균소득의 167%	20.8	20.5	21.3	21.7	21.4	21.7	22.5	22.6	21.8	21.6	0.8

자료 : OECD, *Taxing Wages*(2009~2010).

-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증감과 조세격차 증감(2001~2009년)을 비교한 결과, 고용률과 조세격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멕시코, 한국, 일본, 그리스,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조세격차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**KLI**

〈그림 3〉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와 고용률 증감 비교(2001~2009년)

(단위 : %p)



주 : 독신무자녀 가구 기준임.
고용률은 15~64세 기준임.
자료 : OECD, *Taxing Wages*(2009~2010).

(김복순,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)